

한국 최고 퍼블릭골프장으로 선정

베어크리크 GC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심사 결과

포천시 화현면 소재 베어크리크 골프장이 국내 퍼블릭골프장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다. 골프 전문 월간지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전문가 집단 49명의 심사와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한국 10대 퍼블릭골프장을 뽑은 결과 베어크리크골프장 베어코스가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베어크리크골프장 베어코스는 샷의 가치 반영, 공정성, 안전성 등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고 시설과 종업원 전문성에서도 상위에

올랐다. 5월말 현재 운영중인 국내 48개 퍼블릭 코스를 대상으로 골프계 다방면의 전문가 49명이 평가(90%)하고 여기에 프로골퍼와 클럽멤버인 설문조사, 인터넷 및 엽서투표 결과(10%)를 가산해 점수를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 레이크힐스골프장은 코스 관리, 심미성, 시설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2위에 뽑혔고 인천 스키야드골프장 하늘코스는 인터넷과 우편엽서 인기 투표 1위를 토대로 종합 3위로 선정



포천시 화현면 소재 베어크리크골프장이 국내 퍼블릭골프장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다.

했다. 이밖에 제주도 중문골프장,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남코스, 강원도 하이원골프장, 전남 나주 플드레이크골프장, 경남 남해

힐튼해골프장, 충남 천안 상록골프장, 전남 영광 아크로골프장 등이 10대 퍼블릭골프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복날 삼계탕으로 하나되는 이웃

육군 2지사, 606경자대대 노인정 위문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606경자대대(대대장 최갑생 중령)는 8월8일 말복을 맞아 부대 인근 동교4동 노인분 40여명을 부대로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이날 삼계탕 대접은 부대 장병 10여명이 삼계탕과 떡, 음료 등을 부대 인근 계곡에 자리를 마련해 더위도 식히고 즐거운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와 비포장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지원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부대는 여름철 방역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부대 방역시 동네까지 방역에 나서 서로 돕고 사는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606경자대대장 최갑생 중령은 "이런 방문 행사를 통해 가정현원이 어려운 병사들이 오히려 가족

의 정을 느끼는 기회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같은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삼계탕 대접에 대해 최정순(70) 할머니는 "우리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마련해 주신 부대장님과 부대의 건강을 위해 건배합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동교4동 우석철 통장은 "매번 이렇게 노인분들을 대접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며 "동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대대장님이 오랫동안 이 부대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606경자대대는 8월8일 말복을 맞아 부대 인근 동교4동 노인분 40여명을 부대로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紙上갤러리 ⑩ 그림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상징

홍승표의 '천진(天真)의 세계'

홍승표는 지난 십 수년을 서예가로 활동하며 필의 운용에 대한 깊이를 추구했다.

그렇기에 그의 그림을 보면 문자를 모태로 조형의 방향을 탐구하며, 기



홍승표의 '천진(天真)의 세계'

(氣)를 이용한 획(劃)의 운용으로 발전시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작품 '경계에선 인간'은 경계를 의미하는 계자와 종을 호자를, 자연의 형상을 담은 전서와 예체로 해체하고 조합하여 표현했다.

이는 세상의 이치를 음양의 원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음양의 원리는 조화와 기의 운행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의 화가 겸 비평가인 사혁은 소책자인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필법의 요체를 육법(六法)으로 나누어 논하였는데, 그중 첫째가 기운생동(氣韻生動)이다. 즉 한 폭의 그림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과 정신적 혼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으로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관(五官)으로 느껴지는 것인 데, 기운의 막힘에서 불안과 갈등이 초래된다고 작가는 보고 있다.

자연과 사회와 자신을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해 홍승표는 태양과 정열을 담은 경계(境界)와 좋을 호(好)자의 의미를 적과 백의 대비로 화폭에 새겨, 궁정과 기의 자연스런 순환을 통해 영원과 피안의 세계를 찾아가고 있다.

이 점이 우주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참 마음인 천진(天真)의 세계를 찾는 작가가 갈망이라 할 것이다.

글/ 강구원(화가, 계간비질주인)

식물과 사람 ④ | 연꽃 Nelumbo nucifera

물 위에 피어난 우아함

여름은 수생식물의 계절이다. 연꽃, 수련, 부들, 참초 등 물속 또는 물가에 자라는 식물들은 수온이 높아지면서 잎도 나고 꽃피울 준비도 한다.

물이 많은 동네인 '우물목'에 자리 잡은 평강식물원에는 유난히 물을 소재로 한 정원이 많다. 특히 요즘은 연꽃정원이 한창 예쁘다. 다양한 연꽃과 수련을 전시해 놓아 들어오는 사람마다 감탄사를 내뿜는다.

그런데 예상외로 연꽃과 수련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연꽃은 줄기가 직립하여 물위에 떠 있는 것이 많고 잎은 동글동글한 방패형이다. 잎 표면은 납 물질로 덮혀 있어 물을 뿌리면 방울지어 포르포르 떨어진다. 수련은 수면에 떠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잎 한쪽이 갈라져 있다. 일하다가 손님을 만나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연꽃의 잎은 개구리왕눈이가 쓰고 다녔던 우산이고, 수련의 잎은 풀쭉쭉 뛰여 건너다니던 발판이라고 이야기해준다. 꽃은 비슷하지만 꽃 안에 벌집모양의 연밥이 있는 것이 연꽃이고, 오후가 되면 꽃잎을 오므리고 잠을 자는 꽃이 수련이다. 그래서 수련의 '수'는 '水(물 수)'가 아니라 '睡(잘 수)'를 쓴다.

심정이의 효성을 닮았는지 연꽃은 사람에게 유익한 효과



식물이다. 꽃, 잎, 줄기, 뿌리, 씨앗까지 전부 먹을 수 있다. 연꽃잎으로 차를 우려내어 먹으면 향이 매우 좋다. 중국에서는 근경과 씨앗이 노화를 지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각성이 있는 근경의 즙은 여드름이나 습진에 마신다. 뿌리는 구토 증세를 치료하며, 냉각시킨 잎은 일사병을 치료하고 열을 내린다. 씨앗, 꽃, 섬유질인 줄기의 즙은 심장 강장제로 쓰인다.



손자은
평강식물원 기획관리팀
문의: 031-531-7750

다양한 분야의 자문 역할 돋보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6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이보용)는 8월5일 오후5시 군내면 직두리 소재 논배농장에서 제2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정기회의에서 이보용 위원장은 "삼북중에서 산수수려한 이곳에서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문위원회와 포천신문이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포천신문사 최호열 대표이사는 "오늘 신규로 위촉된 차승현 위원님을 환영하며 약업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전 출직인 국회의원, 시장, 의장과 차례로 특별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 경제현안문제에 대해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며 "지역보다 나은 포천지역을 신문사와 더불어 자문위원회의 발전을 통해 포천시가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차승현 신진약국 대표이사사를 약업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신규 자문위원 위촉증신의 건을 상정해 이금중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 지회장을 노인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 승인했으며 김정익 의원은 중앙부대에서 활동하는 이유로 본인의 뜻에 따라 해촉을 승인했다.

그리고 건축, 체육, 불교 분야의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하고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을 추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청취의 시간도 가졌으며 각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지속할 시일내 지급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차승현 신임위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좌로부터 최호열 대표이사, 차승현 신임위원, 이보용 자문위원장)



포천 한탄강 메기매운탕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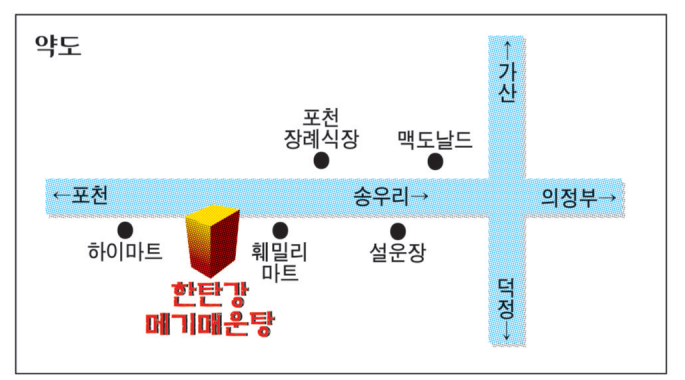
대표 노 훈

김포에 유명한 한탄강 매운탕을 포천에서 맛보실수 있습니다.

한남비 28,000원에 4인이 드시기에 충분합니다.

수제비와 라면사리 무제한 공짜!!

(참게 추가 가능)



단체예약환영 (031)541-5535 주차장완비 · 냉방완비 미리 예약하시면 빨리 드실 수 있습니다.